

Appendix

부록



● 봉선잡의

봉선잡의(奉先雜儀)

양경희
한국고전번역원

권 상(卷上)

1. 사당(祠堂)⁰¹

사당(祠堂)을 정침(正寢)⁰²의 동쪽에 세워서 선세(先世)의 신주(神主)를 모신다.

사당의 규모는 세 칸으로 하고 중문(中門) 밖에 두 개의 계단을 만드는데 동쪽은 조계(階階)라고 하고 서쪽은 서계(西階)라고 한다. 신주는 모두 궤 안에 넣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는데, 각각 감실(龕室)⁰³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 감실 밖에는 작은 주렴을 드리우고 주렴 밖에는 향탁(香卓)을 당(堂) 가운데에 설치하여 향로(香爐)와 향합(香盥)을 그 위에 놓는다. 또 유서(遺書)와 의물(衣物)⁰⁴을 보관하는 창고와 제기(祭器)를 보관하는 창고와 신주(神廚)⁰⁵를 그 동쪽에 짓고 담장을 두르되 별도로 외문(外門)을 만들어서 항상 빗장을 걸어서 어린아이나 종이나 첩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다. 집안이 가난하고 땅이 좁으면 한 칸의 규모로만 세우고 부엌과 창고는 세우지 않는다,

가옥(家屋)의 제도는 다만 앞을 남향으로 하고 뒤를 북향으로 하고 좌를 동쪽으로 삼고 오른쪽을 서쪽으로

삼는다. 뒤의 내용도 모두 이와 비슷하다.

○ 사당이 있는 집은 종자(宗子)가 대대로 지키고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한다.

방친(傍親)⁰⁶으로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서(次序)대로 합사(合祀)한다.

백숙부모는 증조(曾祖)에 합사하고 처와 형제와 형제의 처는 조부(祖父)에 합사하고 자질(子姪)은 부(父)에 합사하는데 모두 서향(西向)한다. 신주와 신주궤는 모두 정위(正位)⁰⁷의 제도와 같이 한다. 조카의 아버지가 독자적으로 사당을 세웠으면 옮겨서 그것을 따른다.

정자(程子)는, “복(服)이 없는 상(殤)⁰⁸은 제사지내지 않는다. 하상(下殤)의 제사는 그의 부모가 죽을 때까지, 중상(中傷)의 제사는 그의 형제가 죽을 때까지, 장상(長殤)의 제사는 그 형제의 자식이 죽을 때까지 지내며, 성인(成人)으로서 후사가 없는 자는 그 형제의 손자가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다. 8살부터 11살 사이에 죽은 사람을 하상(下殤)이라 하고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죽은 사람을 중상(中殤)이라 하고 16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사람을 장상(長殤)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01 <봉선잡의(奉先雜儀)> 원문에는 없으나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의거하여 추가하였다.

02 옛날의 연침(燕寢)과 같으니 사람들이 편히 쉬는 공간이다.

03 신주를 안치하는 방이다.

04 죽은 사람이 입던 옷가지이다.

05 사계(沙溪)는 ‘제사지낼 때 술이나 음식을 데우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家禮增解) 주자(朱子)가례 번역본에서 재인용.

06 직계(直系)에서 나뉘어진 방계(傍系)의 친척을 말한다. 나를 기준으로 부, 조는 직계이고 백숙중고(伯叔仲父)와 백숙부조(伯叔父祖) 형제는 방친이다.

07 고조, 증조, 조부, 부의 신위를 말하며 여기에 합사한 신위를 부위(附位)라고 한다.

08 관례(冠禮)를 치르기 되기 전에 죽은 것을 말한다.

제전(祭田)을 두고 제기(祭器)를 갖춘다.

처음에 사당을 세우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지(田地)를 헤아려서 20분의 3을 취하여 제전을 삼고 종자(宗子)가 주관하여 제사의 비용으로 지급한다. 상(牀), 자리, 의자, 탁자, 술과 음식을 담는 그릇은 쓰는 개수대로 마련하여 모두 창고 안에 넣어 자물쇠를 잠궈 놓고서 다른 용도에 쓰지 않는다. 창고가 없으면 궤 속에 보관하며 보관할 수 없는 것은 외문(外門)의 안쪽에 늘어놓는다.

주인(主人)은 대문의 안에서 새벽에 배알(拜謁)하고 신물(新物)이 나오면 올린다.

주인은 종자(宗子)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새벽의 배알에는 심의(深衣)를 입고 분향(焚香)하며 재배(再拜)한다. 신물이 나오면 소반(小盤)에 올리며 신주궤를 열어 분향하고서 제배한다.

사마온공(司馬溫公)⁰⁹의 <<영당잡의(影堂雜儀)>>에 “시절에 나는 식물(食物)이 있으면 먼저 영당(影堂)에 올린다.” 라고 하였다.

나가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사당에 고한다.

주인(主人)과 주부(主婦)가 가까운 곳에 나갈 때는 대문으로 들어가 참례(瞻禮)¹⁰하고 간다. 돌아올 때도 이와 같이 한다. 경숙(經宿)¹¹하고 돌아오면 분향하고 재배한다. 먼 곳에 1개월 이상을 나갈 때는 재배 분향하고서 이르기를 ‘아무개가 장차 아무 장소로 가려고 감히 고합니다.’ 라고 하고 또다시 재배하고서 간다. 돌아올 때도 이처럼 한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

주부(主婦)는 주인(主人)의 처이다. 승강할 때에는 오직 주인만 조계를 거쳐가고 주부와 나머지 사람은 존장(尊長)이라도 서계(西階)를 거쳐간다. 후자가 문기를 ‘옛날에 부인은 숙배(肅拜)를 바른 도리로 여겼는데 무엇을 숙배라고 합니까’ 하니, 주자가 이르기를 ‘두 무릎을 나란히 꿇고 손은 땅에 대고 머리는 숙이지 않는 것을 숙배라고 한다’ 하였다. 장자(張子)가 이르기를 ‘부인의 절은 옛날에는 머리를 숙여 땅에 닿게 하는 것이 숙배인데, 지금은 무릎만 꿇고 몸은 세우니 위익(威儀)을 잃었다.’ 하였다

정조(正朝)¹², 동지(冬至),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參拜)한다.

하루 전에 청소하고 재숙(齋宿)¹³한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발을 걷는다. 감실마다 소과(蔬果)를 담은 대반(大盤)을 탁자 위에 놓는다. 신위마다 차 잔탁(盞托)과, 술 잔반(盞盤)¹⁴ 각 하나씩을 신주 독(櫝)¹⁵ 앞에 놓고 띠 다발과 모래더미를¹⁶ 향탁 앞에 놓는다. 탁자 하나를 조계 위쪽에 별도로 설치하여 술을 담은 잔반(盞盤) 하나를 그 위에 두며 술 1병을 그 서쪽에 두고 세숫대야와 수건 각각 2개를 조계 아래 동남쪽에 두며 주인 이하가 성복(盛服)하고 문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리에 선다. 주인은 조계 아래에서 북면(北面)하고 주부는 서계(西階) 아래에서 북면한다. 주인에게 어머니가 있으면 특별히 주부의 앞에 자리잡는다. 주인에게 제부(諸父)¹⁷와 제형(諸兄)¹⁸이 있으면 특별히 주인

09 북송 때의 학자이며 정치가인 사마광을 말한다.

10 『가례집람(家禮輯覽)』에는 ‘음(摺)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자가례 번역본에서 재인용)

11 외부에서 밤을 세고 돌아오는 것을 이른다.

12 정월 초하루를 말한다.

13 재소(齋所)에서 재계하면서 묵음.

14 술잔과 술잔을 받치는 그릇. 한 벌의 구조로 되어 있다.

15 신주(神主)를 담는 궤이다.

16 모사기(茅沙器)를 말하는데, 모래를 담은 그릇에 띠뿔을 꽂는다.

오른쪽 약간 앞쪽에 여러 줄로¹⁹ 서는데 서쪽이 우위이다. 제모(諸母)²⁰와 고모, 형수, 손윗누이가 있으면 특별히 주부의 왼쪽 약간 앞쪽에 여러 줄로 서는데 동쪽이 우위이다. 동생들은 주인의 오른쪽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 자리한다. 자손과 외집사(外執事)²¹는 주인의 뒤에 여러 줄로 서는데 서쪽이 우위이다. 주인 아우의 처와 제매(諸妹)²²는 주부의 왼쪽 뒤쪽으로 약간 물러나서 자리잡는다. 자손의 부녀와 내집사(內執事)²³는 주부의 뒤에 여러 줄로 서는데 동쪽이 우위이다. 자리가 정돈되면 주인이 손을 씻고 당으로 올라가서 홀을 깨끗이 신주독을 열어서 제고(諸考)²⁴의 신주를 받들어 독 앞에 놓는다. 주부가 손을 씻고 올라가서 제비(諸妣)²⁵의 신주를 모셔다가 고(考)의 동쪽에 놓는다. 차례로 꺼내는 부주(附主)²⁶도 이처럼 하는데, 자제에게 명하여 손을 씻고 올라가서 여러 부주(附主)의 향렬이 낮은 신주를 나누어서 꺼내 놓도록 한다. 모든 예가 끝나고 집사자가 소반에 생선, 고기, 쌀과 밀가루로 만든 음식, 밥과 국을 받들고 와서 바치면 주인과 주부가 차례로 여러 고비(考妣)의 신위 앞에 바친다. 주부 이하가 먼저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이 향탁 앞에 나아가서 강신(降神)²⁷의 예를 행하는데, 홀을 띠에 꿰고 분향한다. 집사가 손을 씻고 술을 잔에 따라서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주인이 잔과 반을 받는데 왼쪽으로 반을 잡고 오른쪽으로 잔을 잡은 채 띠풀 위에 술을 붓고 잔과 반

을 집사자에게 준다. 주인이 홀을 빼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약간 물러나서 재배한다.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와 함께 재배하고 참신(參神)²⁸한다. 주인이 올라가서 홀을 띠에 꿰고 술주전자²⁹를 잡고 먼저 정위(正位)에 술을 따르고 다음에는 부위에 따르며 다음에는 장자(長子)에게 명하여 향렬이 낮은 여러 부위에 따르게 한다. 주부가 올라가서 다선(茶筴)³⁰을 잡으면 집사자가 뜨거운 물을 넣은 병을 잡고 그를 따라서 점다(點茶)³¹하기를 앞의 의식처럼 한다. 장부나 장녀에게 명하는 것도 이처럼 한다. 자부(子婦)와 집사자가 먼저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주인이 홀을 빼서 주부와 함께 향탁의 앞 동쪽과 서쪽에 자리를 나누어 서서 재배하고 내려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와 함께 재배하고서 사신(辭神)³²하고 물러난다.

보름에는 술을 진설하지 않는다, 주인이 점다(點茶)하면 장자가 돕고서 먼저 내려간다. 주인이 향탁의 남쪽에 서서 재배한다. 나머지는 위의 의식과 같다.

사마 온공(司馬溫公)의 <<영당 잡의(影堂雜儀)>>에 이르기를 “초하루에는 차와 술, 상식(常食)³³의 몇 가지를 마련하고 보름에는 밥을 마련하지 않는다.” 하였다.

○성복(盛服)의 경우에는 관직이 있으면 공복(公服)과 홀, 띠를 갖추고 공복이 없으면 흑단령과 사모와 품대(品帶)를 갖추며 관직이 없는 자는 흑단령에 흑대를 갖

17 백부(伯父)와 숙부(叔父)의 통칭이다.

18 남자 형제들의 통칭이다.

19 향렬대로 줄을 만들어 여러 줄을 만드는 것이다.

20 아버지의 첩, 서모(庶母)이다.

21 자손이 한다.

22 손아랫누이이다.

23 자손 혹은 자손의 부녀가 된다.

24 제사를 지낼 대상인 증조고, 조고, 고의 통칭이다.

25 종조비, 조비, 비의 통칭이다.

26 부위(附位)의 신주이다. 부위는 방계로서 반부(班附)한 신주를 말한다.

27 신이 내려와서 흠향하게 하는 절차이다.

28 강림한 신을 뵈는 절차이다.

29 병과 비슷하지만 귀때와 손잡이가 달린 기물이다.

30 차의 냉온을 조절하는 도구.

31 먼저 다기(茶器) 속에 가루로 만든 차를 넣고 나서 끓인 물을 넣고 냉수를 따라서 다선(茶筴)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32 신께 하직하는 것을 말한다.

33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말한다.

준다. 부인의 경우에는 대의(大衣)와 장군(長綳)을 갖춘다.

속절(俗節)에는 시식(時食)을 올린다.

절일은 한식(寒食), 단오(端午), 중추절(仲秋節), 중양(重陽)의 부류이니 모두 향속(鄉俗)에서 숭상하는 것이다. 시식은 모두 그 절기에 숭상하는 것이니 대반(大盤)에 채소와 과일을 올린다. 예는 정조, 동지, 초하루의 의례와 같다.

○ 주자는,

“오늘의 속절은 옛날에는 없었으니, 고인(古人)들은 제사지내지 않아도 마음은 본래 편안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중히 여겨서 이 날이 되면 반드시 음식을 갖추어서 서로 즐기게 되었으니, 절식(節食)도 각기 거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속의 정리에 이 날이 되면 조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절식으로 제향(祭享)을 지내니 올바른 예는 아니라 해도 인정상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고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감히 즐기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이런 속절에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올바른 도리에 근거하여 제사는 이미 폐지했으면서도 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서는 여전히 습속(習俗)을 따르고 있으니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망자(亡者) 섬기기를 존자(存者) 섬기듯이 하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세속에서는 정조, 한식, 단오, 추석에 모두 묘소에 나아가서 성묘하니 지금 특별히 폐지할 수는 없다. 이날 새벽에 사당에 나아가서 음식물을 바치고 이어서 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한다. 묘가 멀다면 2, 3일 전에 묘소에 나아가서 재숙(齋宿)하고 전배(奠拜)하는 것도 괜찮다.

일이 있으면 고한다.

정조, 동지, 초하루 의식의 경우에는 차와 술만 바치고 재배한다. 주부가 먼저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주인이 향탁(香卓)의 남쪽에 꿇어앉고 축(祝)³⁴이 축판(祝板)을 들고 주인의 좌측에 꿇어앉아서 축판을 읽고서 주인과 함께 재배하고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나머지도 모두 같다.

관직을 받은 것을 고할 때에는 축판에 이르기를, ‘유년 세월(維年歲月) 초하루에 효자(孝子) 모관(某官) 아무개는 감히 고(故) 모친 모관(某親某官) 봉시 부군(封諡府君)과 고(考) 모친 모봉(某親某封) 모씨(某氏)에게 밝게 고합니다. 아무개가 모월 모일에 성은(聖恩)을 입어 모관을 제수받아서 선조의 교훈(教訓)을 받들어 녹위(祿位)를 얻게 되었으니 여경(餘慶)이 미치게 됨에 감모(感慕)를 이길 수 없어서 삼가 술과 과일로 삼가 경건하게 고합니다.”라고 한다. 좌천된 사실을 삼가 고할 때는 ‘모관으로 좌천되어 선조의 교훈을 추락시켰으니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며 ‘근(謹)’ 이후는 같다. 제자(弟子)의 경우에는 ‘모(某)의 모모(某某)’라고 하되, 나머지는 같다.

○ 추증된 사실을 고할 때에는 추증된 분의 감실(龕室)에만 고하는데 감실 앞에 향탁을 별도로 설치하며 또 탁자를 동쪽에 설치하여 정수(淨水)³⁵, 분잔(粉盞)³⁶, 쇄자(刷子)³⁷, 벼루, 먹, 붓을 그 위에 놓는다. 나머지는 앞의 내용과 모두 같다. 다만 축판에 이르기를 ‘모월 모일의 교서(敎書)를 받드니 고 모친 모관(故某親某官)과 고 모친 모봉(故某親某封)을 추증하셨습니다. 아무개는 삼가 선조의 가르침을 받들어 조정에서 직위를 얻었는데, 삼가 은혜로운 경사를 받들어 이런 포증(褒贈)이 있게 되었지만 녹으로 봉양해 드리지 못하니 목이 메어오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삼가’ 이후는 같다. 일로 인해서 특별히 증직되었다면 별도로 글을 만들어서 그 뜻을 나타내며 고하고 나서는 재배한다. 주인이 나아가서 신주를 모시고 탁자 위에 놓으면 집사

34 축문(祝文)을 읽는 사람을 말한다.

35 신주에 쓰여진 글자를 지우는 데에 사용하는 물.

36 분(粉)을 담은 그릇. 여기서 분은 신주의 표면에 칠하는 하얀 액체이다.

37 물을 묻혀서 신주에 쓰여있는 글자를 씻어내는 도구이다.

가 옛 글자를 씻어버리고 별도로 분을 바른다. 분이 마르기를 기다려서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명하여 추증 받은 관봉(官封)을 다시 쓰되 함중(陷中)³⁸의 글자는 고치지 않는다. 신주를 씻은 물은 사당의 네 벽에 뿌린다. 주인이 신주를 모시고 본래 있었던 자리에 놓고서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나머지 의식은 앞과 같다.

○ 관혼(冠婚) 및 적장자(嫡長子)를 낳았을 때도 모두 고하는 예가 있는데 <<가례(家禮)>>에 상세하게 보인다.

○ 고사(告辭)의 축은 제고비(諸考妣)의 위는 함께 하나의 축판으로 만들지만 주인 자신의 칭호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을 위주로 하여 칭한다. 정위(正位)에만 고하고 부위(副位)에는 고하지 않는다. 차와 술은 모두에게 진설한다.

홍수와 화재, 도적의 변이 있으면 먼저 사당을 구하는데 신주(神主)와 유서(遺書)를 옮기며 다음에는 제기(祭器)를 구한다. 그런 후에 가재 도구에 미친다. 세차(世次)가 바뀌면 신주를 고쳐 쓰고 교체하여 옮긴다.

<<가례>>를 살펴보면 대종(大宗)³⁹의 집안에서는 시조(始祖)가 친진(親盡)⁴⁰하면 그 신주를 묘소에 묻되 대종에서 아직도 묘전(墓田)을 주관하여 묘제를 받들며 해마다 종인(宗人)을 거느리고 한 차례 제사지내기를 백세토록 고치지 않는다. 2세 이하의 조(祖)가 친진하였거나 소종(小宗)⁴¹의 집안에서 고조(高祖)가 친진하면 신주를 옮겨서 묻고 묘전은 제위(諸位)가 번갈아 관장하며⁴² 해마다 자손을 이끌고 한번 제사 지내는 것을 백세토록 고치지 않는다.

양씨(楊氏)⁴³는, “<<가례(家禮)>>에서는 시조가 친진

하면 신주를 묘소에 보관한다고 하였다. <상례편(喪禮編)>⁴⁴의 대상장(大祥章)에서 ‘친진한 조상이 있으면 별자(別子)는 축판에 운운하여 고하고 신주를 묘소로 옮기되 묻지는 않는다’ 라고 하였으니 신주를 묘소에 보관하되 묻지 않는다면 묘소에 반드시 사당이 있어서 묘제를 받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 사시제(四時祭)

증조의 종통(宗統)을 이었으면 증조 이하의 고비(考妣)를 제사지내고 조부의 종통을 이었으면 조부 이하의 고비를 제사지내고 아버지의 종통을 이었으면 고비 2위의 신위를 제사지낸다.

○ 후자가 묻기를, “예에서는 대부(大夫)라야 3묘(廟)⁴⁵를 쓴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사서인(士庶人)의 집안에서도 3대를 제사지내니 예에 어긋납니다.” 하니, 주자가 이르기를 “3대를 제사지내더라도 묘는 없으니 참람(僭濫)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시제는 사시의 중월(仲月)⁴⁶을 쓰되 열흘 전에 날을 정한다.

중월에 택일하되 3순(旬) 중에서 각 하루를 정하여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사당에 가서 택한다. 그에 대한 예는 <<가례>>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 정씨(程氏)의 <<사선의주(祀先義註)>>에 “제사하는 날은 중월 내에서 택일하되, 혹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써도 괜찮다.”라고 하였다.

○ <<가례(家禮)>>를 살펴보면 “날을 택하는 의례에서 상순과 하순의 날이 불길하면 하순의 날로 사당에

38 죽은 사람의 성명과 관직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뒷면을 우묵하게 파낸 곳이다.

39 시조의 만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종가의 계통.

40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수(代數)가 다함을 말한다. 4대까지 제사지내고 5대가 지나면 신주를 묘소에 묻고 시제를 지내게 된다.

41 대종가(大宗家)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이다.

42 송시열은 ‘올해는 장자가 주관하고 다음해에는 차자가 주관한다.’ 라고 하였다. (주가가례 번역본 80쪽)

43 남송(南宋)의 학자 양복(楊復)이다. 자는 지인(志仁)이며 주희의 제자이다. 저서에 『祭禮儀禮圖』, 『家禮雜說附注』가 있다.

44 주자가 지은 <<가례(家禮)>>의 편명이다.

45 <<예기(禮記)>>의 <王制>에 ‘대부의 묘는 3묘이나 1소(昭), 1목(穆)과 태조(太祖)의 묘(廟)로서 셋이 된다.’ 라고 하였다. 소목제(昭穆制) 아래에서 각 묘는 독립된 건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다.

46 2월, 5월, 8월, 11월이다.

고한다. 그런데 이 날이 되어서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서 제사를 거행할 수 없으면 제사는 지내지 않을 수 없고 제때에 거행하는 제사를 치르지 못할까 염려되니 지금은 정씨의 <<사선의주>>의 택일하여 거행하되 혹은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쓴다.”라고 한 내용에 의거하는 것도 좋겠다.

기일 사흘 전에 재계한다.

기일 사흘 전에 주인은 장부(丈夫)들을 거느리고 밖에서 치재(致齋)⁴⁷하고 주부는 부녀(婦女)들을 거느리고 안에서 치재하고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술은 마셔도 어지러운 지경에는 이르지 말아야 하며 고기는 먹어도 혼채(葷菜)는 먹지 말아야 하며 상가집에 가서 조문(弔問)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으며 흥하고 더러운 일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정씨(程氏)의 <<제례(祭禮)>>에 “산재(散齋)는 이틀을 하고, 치재는 하루를 한다.”라고 하였다.

○ <제의(祭儀)>에, “재계하는 날에는 그분의 거처하시던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웃음소리와 말소리를 생각하고 그분이 뜻을 두시던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즐거워하던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즐기던 것을 생각한다. 재계한 지 사흘이 되어야만 그가 재계하는 바를 보니 재계란 오직 제사에만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정자는, “이것은 효자가 평일에 아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재계는 아니다. 재계란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생각이 있으면 재계가 아니다. 재계는 담연(澹然)하게 순일(純一)해야만이 비로소 귀신과 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자의 논의를 살펴보면 <제의(祭儀)>의 뜻과는 다르다. 효자가 평일에 아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지극하지 않음이 없지만 제사를 지내려고 재계하게 되

면 추모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니 어찌 그분의 거처와 언소(言笑)와 뜻을 두시던 것과 즐기시던 것을 생각하지 않으리오. 그러나 이것은 산재(散齋)하는 날에 하는 것이요, 치재(致齋)하는 날이 되면 담연(澹然)하게 순일(純一)하여 정명(精明)한 덕에 전일하여만神明(神明)과 통할 수 있다.

하루 전에 자리를 마련하고 기물을 늘어놓는다.

주인이 여러 장부를 거느리고 심의(深衣)를 입고서 집사와 함께 정침(正寢)을 쓸고 닦으며 의자와 탁자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도록 힘쓴다. 증조고비(曾祖考妣)의 신위를 당 서북쪽 벽 아래에 남향하여 놓는데 고(考)는 서쪽에 비(妣)는 동쪽에 각각 놓되 하나의 의자와 하나의 탁자에 합설한다. 조고비(祖考妣)와 고비(考妣)도 차례로 동쪽에 진설하되 모두 증조의 신위처럼 한다. 세차(世次)마다 각각의 자리를 만들어서 한데 모이지 않게 한다. 부위는 모두 동서(東序)하여 서향(西向)하는데 북쪽이 위이다. 혹은 양서(兩序)에서 서로 향하는데 존자(尊者)는 서쪽에 머문다. 향안(香案)을 당 안에 설치하고 향로(香爐)와 향합(香奩)을 그 위에 놓고 띠풀 묶음과 모래를 담은 그릇을 향안과 각 신위 앞의 바닥에 놓는다. 동쪽 계단 위에 술시렁을 설치하고 그 동쪽에 탁자를 놓고 그 위에 술주전자 하나, 뇌주 잔반(爵酒盞盤) 하나, 수조반(受胙盤) 1, 숟가락 1, 수건 1, 다합(茶合)⁴⁸, 찻잔을 놓는다. 화로, 탕병(湯瓶)⁴⁹, 향시(香匙)⁵⁰, 부젓가락⁵¹을 서계(西階) 위에 놓는다. 별도로 탁자를 그 서쪽에 놓고 축판(祝板)을 그 위에 놓는다. 세숫대야와 수건 각각 두 개를 조계(阼階) 아래의 동쪽에 놓는다. 또 음식을 차릴 큰 상(床)을 그 동쪽에 놓는다.

희생(犧牲)을 살피고 그릇을 씻고 음식을 갖춘다.

주인이 장부(丈夫)들을 거느리고 심의 차림으로 죽

47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재계하는 것이다.

48 찻가루를 담은 데에 쓴다.

49 찻물을 따르는 데에 쓴다.

50 분향하는 데에 쓴다.

음에 임한 희생을 살핀다. 주부가 부녀들을 거느리고 제기를 씻고 술을 정결히 하며 제수 음식을 갖추어서 신위마다 과일 6종류, 소채와 포(脯)와 육장(肉醬) 각각 3종류, 어육(魚肉), 미식(米食)⁵²과 면식(麵食)⁵³ 각각 한 그릇, 국과 밥 각각 한 주발, 간 각각 한 꼬치, 고기 각각 두 꼬치를 놓되 정결하게 하는 데에 힘쓴다. 제사지내기 전에는 사람들이 먼저 먹거나 고양이나 개, 벌레나 쥐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날에 일찍 일어나서 소과와 주찬(酒饌)을 차려놓는다.

주인 이하가 심의를 입고 집사자와 함께 제사를 하는 곳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 신위의 탁자 남단에 과일 접시를 진설하고 소채와 포(脯)와 육장(肉醬)⁵⁴은 간격을 두고 차례로 놓는다. 잔반과 식초 접시를 북단에 놓는데 잔반은 서쪽에 시접(匙楪)⁵⁵을 동쪽에 놓고 수저를 그 가운데에 놓는다. 현주(玄酒)⁵⁶와 술 각 1병을 시렁 위에 놓는데 현주는 그날 정화수(井華水)⁵⁷를 떠다가 채워서 술병의 서쪽에 놓는다. 화로에 숯을 피우고, 병에 물을 담는다. 주부가 불을 때서 제수 음식을 데워 아주 뜨겁게 해서 합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동쪽 계단 아래의 큰 상 위에 놓는다.

동이 틀 무렵 신주를 받들고 제자리에 나아간다.

주인 이하가 각각 성복(盛服)하고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후에 사당 앞으로 나아간다. 장부들이 차례로 서는 것은 초하루의 의례와 같다. 자리가 정해지면 주인이 조계(階階)를 통해 올라와서 홀을 띠에 꿰고서 향을 피운다. 홀을 빼고서 고태(高太)를 “효손(孝孫) 아무개는 이번 중춘(仲春)의 달에 증조고(曾祖考) 모관 부군(某官

府君)과 증조비(曾祖妣) 모봉모씨(某封某氏), 조고(祖考) 모관부군(某官府君)과 조비(祖妣) 모봉모씨, 고(考) 모관부군(某官府君)과 비(妣) 모봉모씨에게 일이 있어서 모친모관부군(某親某官府君)과 모친모봉모씨(某親某封某氏)를 부식(祔食)⁵⁸하고자 감히 신주를 청하여 정침(正寢)에 내놓고 공손하게 술을 올립니다.”라고 한다. 고태는 말은 중하(仲夏)와 추동(秋冬)에 각각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한다. 고태고 나서는 홀을 띠에 꿰고 독에 신주를 넣는데 정위(正位)와 부위(副位)를 각각 한 상자에 넣고 각기 집사자 한 사람이 받든다. 주인이 홀을 내고 앞장 서서 정침에 이르러서 서계(西階)의 탁자 위에 놓는다. 주인이 홀을 띠에 꿰고 독을 열어서 제고(諸考)의 신주를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주부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뒤에 올라가서 제비(諸妣)의 신주를 또한 이 처럼 한다. 부위는 자제 한 사람이 받든다. 끝나면 주인 이하는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 정씨(程氏)의 <제례(祭禮)>를 살펴보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뒤에 사당에 나아가 제위(諸位)의 신주를 받들어 반(盤)에 올려놓고 자제 각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에 이르게 한다. 주부 이하는 제사 지내는 곳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참신(參神)

주인과 주부 이하가 서는 것은 앞의 의례와 같다. 자리가 정해지면 재배한다.

강신(降神)

주인이 올라가서 홀을 띠에 꿰고 향을 피우며 조금 물러나서 무릎을 꿇는다. 집사자가 술병을 열고 건을

51 간이나 고기를 굽는 데에 쓴다.

52 쌀로 만든 음식으로 떡 종류를 말한다.

53 밀가루로 만든 음식 종류를 말한다.

54 고기 장조림이다.

55 수저를 놓는 접시이다.

56 제사에 쓰는 맑은 물이다. 태고(太古)에는 술이 없어서 물을 대신 사용하였는데 빛이 검었으므로 현주(玄酒)라고 하였다.

57 그날 새벽에 처음으로 길은 물을 말한다.

58 조상과 함께 제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가져다가 병의 입구를 닦는다. 잔에 술을 따라서 무릎을 꿇은 채 주인의 오른쪽에 올리면 주인이 받는데 왼쪽으로는 잔받침을 잡고 오른쪽으로는 잔을 잡아서 띠풀 위에 붓는다. 잔받침과 잔을 집사자에게 주고 홀을 빼내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한다.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 양씨(楊氏)는 “강신(降神)할 때의 뇌주(酌酒)에서는 술을 완전히 기울인다. 초헌에 고조고비의 잔을 가져다가 띠풀 위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신령을 대신하여 제사지내는 것이다. <<예기(禮記)>>에 ‘제주를 땅에 조금 붓고 변두 사이에서 음식으로 제사지낸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신령을 대신하여 제사지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찬

주인이 올라오고 주부가 따른다. 집사자 한 사람은 소반에 생선과 고기를 담고 한 사람은 미식(米食)과 면식(麵食)을 소반에 담고 한 사람은 소반에 국과 밥을 담아서 따라 올라온다. 증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면 주인이 홀을 띠에 꽂고 음식을 받들어 고기를 반잔(盤盞)의 남쪽에 올리고 주부는 면식(麵食)을 고기의 서쪽에 올린다. 주인이 생선을 초접시의 남쪽에 올리고 주부는 미식(米食)을 생선의 동쪽에 올린다. 주인은 초접시의 동쪽에 국을 올리고 주부는 반잔의 서쪽에 밥을 올린다. 주인이 홀을 빼고 차례대로 여러 정위(正位)를 진설하고 자제들로 하여금 각기 부위(副位)를 진설하게 한다. 모든 의식이 끝나면 주인 이하는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헌(初獻)

주인이 증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선다. (겨울철에는 먼저 나아가서 술을 데운다.) 주인이 홀을 띠에 꽂고 증조고의 반잔(盤盞)을 받들어 신위 앞에 동향하여 선다. 집사자가 서향하여 잔에 술을 따르면 주인이 받아서 본래

의 자리에 올린다. 다음에 증조비의 반잔을 받드는 것도 이처럼 한다. 주인이 신위 앞에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집사자 2인이 증조고비의 반잔을 받들고서 주인의 좌우에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증조고의 반잔을 받들어 띠풀 위에 제사드리고 반잔을 집사에게 주면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놓는다. 증조고비의 반잔을 받드는 것도 이처럼 한다. 주인이 홀을 빼고 부복했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는다. 집사자가 간을 화로에 구워서 접시에 담으면 형제 중에서 장자 한 사람이 받들고 증조고비의 신위 앞에 올린다. 축이 판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에 무릎을 꿇고 읽기를 ‘유년 세월 삭일(維年歲月朔日)에 효증손(孝曾孫) 모관(某官) 아무개가 감히 증조고 모관 부군과 증조비 모봉 모씨에게 밝게 고합니다. 절기가 바뀌어 때가 중춘이 되니. 세시에 추감(追感)하여 오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감히 정결한 희생과, 서품(庶品)과 자성(柒盛)과 예제(禮霽)를 (희생이 없으면 청작(淸酌)과 서수(庶羞)라고 한다.) 공손히 세사(歲事)에 바치고 모친 모관부군 모봉모씨(某親某官府君某封某氏)를 부식(附食)하니 상향(尙饗)하소서.’라고 한다. 주인이 부복했다가 일어나서 뒤로 물러나서 여러 신위에 나아가 축을 바치는 것을 처음처럼 한다. 부위(副位)는 자제 중에서 아헌과 중헌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시켜 거행한다. 작헌(酌獻)이 끝나면 주인이 향탁의 남쪽에 서서 재배하고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다른 그릇에 술을 거두고 본래의 자리에 잔을 놓는다.

○조(祖)의 신위 앞에서는 효손(孝孫)이라고 칭하고 고(考)의 신위 앞에서는 효자(孝子)라고 칭하고 ‘불승영모(不勝永慕)’를 ‘호천망극(昊天罔極)’으로 고친다.

○부위의 경우에 백숙부는 증조에 합사(合祀)하고 형제는 조에 합사하고 자손은 고에 합사한다.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만약 본위(本位)⁵⁹가 없다면 모친부식(某親附食)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헌(亞獻)

59 정위(正位)를 말한다.

주부가 한다. 부녀들이 구운 고기를 받드는 것과 나누어 헌작하는 일은 초헌의 의례처럼 하되 축만은 읽지 않는다.

중헌(終獻)

형제 중에서 연장자나 장남이 한다. 혹은 친척이나 빈객이 하기도 한다. 여러 자제들이 구운 고기를 올리는 일과 나누어 헌작하는 일은 아헌의 의례처럼 한다.

유식(侑食)⁶⁰

주인이 올라가서 홀을 띠에 꿰고 술주전자를 잡고 모든 신위에 술을 따르고 술이 차면 향안의 동남쪽에 선다. 주부가 올라와서 밥 가운데에 숟가락을 꿰뚫어 자리를 서쪽으로 한다. 젓가락은 시접(匙牒) 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향안의 서남쪽에 서서 모두 북향한다. 재배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당 문을 닫음(闔門)

주인 이하가 모두 나오면 축이 문을 닫는다. 문이 없는 곳에서는 발을 내리는 것도 괜찮다. 주인은 문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장부들은 그 뒤에 있다. 주부는 문 서쪽에 서서 동향하며 부녀들은 그 뒤에 있다. 존장이 계신다면 다른 곳에서 조금 선다.

사당 문을 여는 일(啓門)

축이 세 번 헛기침 소리를 내고서 문을 열면 주인 이하가 모두 들어간다. 다른 곳에서 쉬던 존장자도 역시 들어가서 제자리로 나아간다. 주인과 주부가 차를 받들어 여러 고(考)와 비(妣) 앞에 나누어 올린다. 부위는 자제들을 시켜 바친다.

음복함(수조)(受胙)

집사자가 향안 앞에 자리를 마련하면 주인이 자리

에 나아가서 북면한다. 축이 증조고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술주전자와 잔받침과 잔을 들고 주인의 오른쪽에 나아간다. 주인이 무릎을 꿇으면 축도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홀을 띠에 꿰고 반잔(盤盞)을 받아서 술로 제사 지내고⁶¹ 술을 맛본다. 축이 숟가락과 반(盤)을 가져다가 각 신위의 밥 약간씩을 떠서 받들고 주인의 왼쪽에 가서 주인에게 복을 기원하기를 “조고께서 공축(工祝)에게 명하여 너희 효손(孝孫)이 많은 복을 받도록 하였으니 너희 효손은 하늘에서 복을 받아서 밭에서 농사가 잘 될 것이며 미수의 나이로 장수할 것이니 폐하지 말고 길이 하라.”하였다. 주인이 술을 자리 앞에 놓고 홀을 빼고 북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재배한다. 홀을 띠에 꿰고 무릎 꿇고서 밥을 받아서 맛보고 술을 가져다가 맛본다. 집사자가 잔을 받아 술주전자 옆에 놓는다. 밥을 받는 것도 이처럼 한다. 주인이 홀을 잡고 북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쪽 계단 위쪽에 서서 서향한다. 축은 서계 위쪽에 동향하여 서서 ‘이성(利成)⁶²이라고 고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배한다. 주인은 절하지 않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신(辭神)⁶³

주인 이하가 모두 재배한다.

신주를 넣음.

주인과 주부가 모두 올라와서 각각 신주를 받들어서 독에 넣는다. 주인이 상자에 독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모시고 사당에 돌아가는 것을 올 때의 의례처럼 한다.

철상(撤床).

주부가 잔과 술주전자와 다른 그릇에 있는 술을 거두어서 모두 병에 담고 봉하는 것을 감독하니 이른바 복주(福酒)이다. 과일과 채소와 고기와 음식은 연기(燕

60 조상이 흥향하기를 권하는 것.

61 술을 띠에 조금 붓는 것을 말한다.

62 의례 『士虞禮』 “西面告利成” 이는 봉양함이고, 성은 마침이니 조상신을 봉양하고 예가 끝났음을 말한 것이다. 利猶養也 成畢也 言養禮畢也

63 신을 전송하는 것이다.

甗⁶⁴)에 옮겨 담는다. 주부가 제기를 씻어서 보관하는 것을 살핀다.

남은 음식을 대접함(준(餼)).

이날 주인은 제사 고기를 나누는 것을 살펴서 종류 별로 약간씩 취하여 합에 넣고 술과 함께 봉하여 종을 보내는데 글을 가지고 친우에게 제사고기를 보낸다. 그리고 자리를 마련하여 남녀가 자리를 달리하여 내외 존 장에게 헌수하는 것을 의례처럼 한다. 술과 찬이 부족하면 다른 술과 다른 찬을 보낸다. 과하려고 할 때에 주인이 남자중에게 제사고기를 나누어 주고 주부는 내집사(內執事)에게 제사고기를 나누어 주되 미천한 사람에게까지 두루 미쳐서 이날 음식이 모두 없어지게 한다. 고기를 받은 사람은 모두 재배하고 자리를 거둔다.

주자가 말하기를 “제사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을 위주로 할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 재산의 유무에 어울리게 하고 질병이 있으면 근력을 헤아려서 행한다. 재력이 미치는 사람은 의례대로 행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정자의 말을 살펴보면 “고조의 복(服)은 있는데 제사는 지내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주 문공의 <<가례(家禮)>>에서 고조까지의 제사를 언급한 것은 정씨(程氏)의 예를 근본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예기>>에 대부는 3모이며 사는 2묘라고 하고 제사가 고조에 미친다는 내용은 없으니 주자 역시 고조를 제사 지내는 것을 참람되었다고 여겼다. 또 오늘날 국조(國朝)의 예전에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지낸다고 하였으니 이를 어길 수가 없다. 생각건대 고조의 사당은 없지만 제사를 전적으로 폐지할 수 없으니 춘추의 속절(俗節)에 자손을 거느리고 묘소에 가서 제사지내면 예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근본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3. 아버지를 제사지냄 (네(禘)⁶⁵)

아버지를 잇는 종자(宗子) 이상은 모두 제사지낼 수 있는데, 지자(支子)만은 제사지내지 않는다.

계추(季秋)⁶⁶에 아버지를 제사지낸다.

정자가 말하기를, “계추에는 만물이 익기 시작하니 유사함을 본떠서 제사지낸다.” 하였다.

제사 한달 전 하순에 날을 택한다.

시제(時祭)의 의례와 같게 한다.

사흘 전에 재계하고 하루 전에 자리를 마련하고 제기를 진설한다.

시제의 의례와 같게 하되 다만 정침(正寢)에서 두 신위를 합설하는 것에 그친다.

찬을 갖추다

시제의 의례처럼 하되 두 분이다⁶⁷.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채소, 과일, 술, 찬을 진설한다.

시제의 의례와 같다.

날이 밝을 무렵 성복(盛服)을 하고 사당에 나아가서 신주를 받들고 나와서 정침에 내놓는다.

정침에서 시제를 지내는 의례와 같게 한다. 다만 고사(告辭)에서는 “효자 아무개가 오늘 계추의 만물이 익기 시작하는 때를 맞아서 고 모관부군(考某官府君)과 비 모봉모씨(妣某封某氏)께 일이 있습니다.”라고 한다. 나머지도 모두 같다.

64 일상에서 쓰는 기물을 말한다.

65 (공양전(公羊傳)·은공(隱公) 원년의 주(注)에, “살아계신 아버지는 ‘부(父)’라고 칭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고(考)’라 칭하며, 사당에 모신 아버지는 ‘네(禘)’라고 칭한다.”라고 하였다.

66 음력 9월을 말한다.

67 고(考)와 비(妣) 두 분의 신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

시제의 의례와 같게 하되 다만 축사(祝辭)에서는 “효자 모관 아무개가 고 모관부군과 비 모봉모씨께 밝게 고하노니 오늘 계추의 만물이 익기 시작하는 때를 맞아서 시절을 느끼어 추모하는 마음이 호천(昊天)에 망극합니다.”라고 한다. 나머지도 모두 같다.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胙), 사신(辭神), 납주(納主), 철상(撤床), 준(饌)

모두 시제의 의례와 같다.

4. 기일(忌日)

정씨(程氏)의 <사선범례(祀先凡例)>를 보면 “조고(祖考)의 기일에는 조고와 조비(祖妣)만 제사지내고 조비의 기일에는 조비와 조고만 제사지내고 이어서 신주를 청하여 중당(中堂)으로 에 가져와서 제사를 지낸다. 나머지 신위의 기일 제사도 모두 같다.”라고 하였다.

하루 전에 제계하고 자리를 마련하여 기물을 진설하고 찬을 갖추며, 그 다음날에 일찍 일어나서 채소, 과일, 술과 찬을 놓는다.

아버지를 제사지내는 의례와 같다.

해가 뜰 무렵에 주인 이하가 옷을 갈아입는다.

백단령(白團領)과 소대(素帶)로 하며, 관직이 있으면 오사모(烏紗帽)와 각대(角帶) 차림을 한다. 아버지의 제사이면 포과(布裹)와 각대 차림을 하고 방친(旁親)이면 흰 심의(深衣)에 흑대(黑帶)를 맨다. 주부는 흰 대의(大衣)와 담황피(淡黃皮)를 입는다. 나머지는 모두 백의로서 화려한 장식이 없는 옷을 입는다.

사당에 나아가 신주를 받들고 나와 정침에 간다.

아버지를 제사지낼 때의 의례와 같이 하되 다만 고사(告辭)에 ‘지금 모친 모관부군(某親某官府君)께서 돌아가신 날에 감히 신주를 내서 정침(正寢)에 나아가서 공

손히 추모하는 마음을 펍니다.’라고 한다. 나머지도 모두 같다.

참신, 강신, 진찬, 초헌.

아버지를 제사지낼 때의 의례와 같게 하고 다만 축사에 이르기를 ‘해가 바뀌어 휘일(諱日)이 다시 이르니 추원하고 시절을 느끼며 영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고비(考妣)의 경우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를 ‘호천망극(昊天罔極)’으로 바꾼다. 방친(傍親)의 경우에는 ‘휘일이 다시 임하니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고비의 경우에는 축이 일어나면 주인 이하가 곡을 하여 슬픔을 다 표현한다. 나머지도 모두 같다.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같이 하되 음복(飲福)은 하지 않는다.

납신, 납주, 철상

아버지를 제사지내는 의식과 같게 하되 다만 남은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다.

이날 음주하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소복(素服)과 소대(素帶)차림으로 머무르며 저녁에는 바깥채에서 잔다.

군자에게는 종신(終身)의 상(喪)이 있으니 기일(忌日)을 이른다. 이날 사모하는 마음이 거상(居喪)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남은 밥을 대접하지 않는 이유이다. 주문공(朱文公)의 <<가례>>를 살펴보면 ‘기일에는 1위만 설치한다.’라고 하였고, 정씨의 <<제례(祭禮)>>에는 ‘기일에는 고비를 함께 제사지낸다.’라고 하니 두분의 예(禮)가 같지 않다. 대개 1위(位)만 배설하는 것은 예의 정도(正道)이고 고비를 함께 제사지내는 것은 예가 정리(情理)에 근본하는 것이니, 죽은 분을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여 자리를 펴고 같은 궤를 쓰는 뜻으로 미루어 보면 예가 정리에서 근본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

5. 묘제(墓祭)

《가례(家禮)》를 살펴보면 ‘묘제는 3월 상순에 택 일하여 행한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 세속에서는 정조(正朝), 한식, 단오, 추석에 모두 묘에 나아가 절하고 성묘하니 지금은 풍속을 따라 행하는 것도 괜찮다.

하루 전에 재계하고 찬을 갖춘다.

시제의 제수 종류와 같게 하되, 생선, 고기, 미식(米食), 면식(麵食) 각각 한 소반을 다시 진설하여 후토(后土)에 제사지낸다.

그 다음날 청소한다.

주인은 시복 차림으로 집사자를 거느리고 묘소에 나아가 재배하는데 영역(塋域)의 내외에 받들어 행한다. 슬픈 심정으로 묘소를 세 바퀴 둘러보고 풀과 가시덤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칼, 도끼, 호미로 자르거나 베거나 뽑아서 깨끗이 한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재배하고 또다시 묘 왼쪽의 땅을 쓸고서 후토신에게 제사지낸다.

자리를 펴고 찬을 진설한다.

정결한 새 자리를 묘 앞에 깔고 찬을 배설하기를 집에서 지내는 제사의 의례처럼 한다.

참신, 강신, 초헌

집에서 지내는 제례와 같이 하되 고사(告辭)에 이르기를 ‘모친 모관부군의 묘에 절서가 바뀌어 때에 느끼는 감회가 더욱 간절한데 봉영(封塋)을 청소하니 슬픈 마음이 더욱 느껴집니다.’ 라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같다.

아헌, 종헌

모두 자제와 친척이 올린다.

사신하고 이내 철상한다.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

지내고 자리를 펴고 찬을 진설한다. 강신과 참신과 삼헌을 행한다.

축사에 이르기를, “모관 성명이 감히 후토씨의 신에게 밝게 고합니다. 아무개가 공손히 모친 모관 부군의 묘 앞에서 공손히 세사(歲事)를 거행하노니 이를 보우하는 것은 실로 신의 은택입니다. 감히 술과 찬으로 공경히 술을 올리니 흠향하소서.” 라고 한다.

주자는, “‘제의(祭儀)⁶⁸’에서는 묘제와 절사(節祀)가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정(先正)은 모두 묘제가 의리에 해롭지 않다고 하였다. 또 계절의 산물로 숭상하는 것은 고인들에게는 없었기에 시제(時祭)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시제에 풍속대로 잔치하기를 각각 계절의 산물로 한다. 조고가 생존했을 때도 그것을 썼고 지금 자손도 이것을 폐하지 않으니 조종(祖宗)에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 제사의 예는 근본에 의거하여 자손이 정성과 공경을 드리는 외에 특별히 힘을 쓸 바는 없다.

○ (주자가) 편지로 자식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근래 묘제를 보면 토신(土神)에게 제사지내는 예가 완전히 지리멸렬하니 내가 매우 걱정스럽다. 이미 선공(先公)이 산림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데 그곳을 맡고 계신 분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묘 앞에서 지내는 제사와 똑같이 채소와 과일, 조, 육포, 밥, 차, 국을 각각 한 그릇씩 마련하여 내가 어버이를 편안하게 하고 후토신(后土神)⁶⁹을 섬기는 뜻에 차등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사람이 죽은 후에는 원야(原野)에 형체를 장사지내서 세상과 단절되지만 효자의 추모하는 마음에 어찌 한이 있으리오. 한서(寒暑)가 변하는 때를 맞이하여 감회가 더하니 분묘에 성묘하여 시사의 공경하는 마음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의 제수는 집안의 빈부에 맞도록 하고 풍성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정결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따름이다. 돌아가신 분을 섬기기를 산 분 섬기듯이 하여 제사지낼

68 예기(禮記)의 편명으로 주로 제사의 의리를 기술하고 있다.

69 토신(土神)이다.

때에 이 마음으로 항상 조종이 곁에 계신 것처럼 공경을 지극히 하면 조종이 양양하게 곁에 계신 듯이 하여 어찌 나의 정성에 오시지 않겠으며 나의 제사를 흠향하지 않겠는가.

권 하(卷下)

1. 제의(祭義)에서는,

“상로(霜露)가 내려서 군자가 밟으면 반드시 쓸쓸한 마음이 일어나니 추위를 말함이 아니다. 봄에 우로(雨露)가 땅을 적셔서 군자가 밟으면 반드시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장차 부모를 뵈는 것처럼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슬픈 마음으로 보내므로 체(禘) 제사에는 음악이 있고 상(嘗) 제사에는 음악이 없다.” 라고 하였다.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종묘(宗廟) 제사로 봄에는 약(禘), 여름에는 체(禘), 가을에는 상(嘗), 겨울에는 증(烝)이 있는데 체에는 음악이 있고 상에는 없다. 체(禘)는 약(禴)이 되어야 마땅하다.

○ 정씨(鄭氏)⁷⁰는, “오는 것을 맞이하여 즐거운 것은 아버지가 장차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다. 가시는 것을 전송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흠향(歆饗)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 방씨(方氏)⁷¹는,

“우로(雨露)로 봄을 말했으니 상로(霜露)로 가을을 말한 뜻을 알 수 있다. 상로에서 추위를 말하지 않았으니 우로에서도 따뜻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우로에서 ‘장차 뵈듯이 한다’고 말했으니 상로에서는 ‘장차 상실(喪失)하듯이 한다’는 뜻이 된다. 대개 봄과 여름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을과 겨울은 떠나가는 것을 전송한다.”라고 하였다.

○ 황씨(黃氏)는,

“우로가 대지를 적시면 만물이 양(陽)에 감응(感應)하여 태어나고 상로가 내리면 만물이 음(陰)에 감응하여 죽는다. 만물이 태어나는 시기에 군자는 차마 아버지가 죽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물(物)과 함께 온다고 하니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만물이 죽는 때에 군자가 아버지가 삶을 마쳤다고 할 수가 없어서 물과 함께 간다고 말하니 슬픔으로 보내는 것이다. 효자의 제사에서 가는 것을 전송하는 슬픔만 있고 즐거움에 미치지 않으면 이를 불인(弗仁)이라고 하고 오는 것을 맞이하는 즐거움만 있고 슬픔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불지(弗知)라고 한다.” 라고 하였다.

2. 제통(祭統)⁷²에서는

“제사지낼 때가 되면 군자는 재계(齋戒)한다. 제계의 뜻은 정제(整齊)이니, 정제(整齊)되지 않은 것을 정제(整齊)시키는 것이다. 재계하려고 할 때에는 사된 일을 하는 것을 막고 기욕(嗜慾)을 그치며 귀로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記)에 이르기를 ‘재계에는 즐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감히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음을 말한다. 마음에는 구차한 생각이 없어서 반드시 도(道)에 의거하며 수족을 구차하게 놀림이 없어서 반드시 예(禮)에 의거한다. 이렇므로 군자의 재계는 오직 정명(精明)한 덕을 이루니, 산재(散齋)하는 7일 동안에 마음을 정돈하고 치재(致齋)하는 3일 동안에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 마음이 정돈된 것을 재(齊)라고 하니, 재는 정명(精明)의 지극한 경지이다. 그렇게 한 뒤에야神明(神明)과 통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물(物)은 일과 같다. 구차한 생각을 하지 않고 구차한 행동을 하지 않으니 모두 ‘사물(邪物)을 막는다’라고 한 내용이다.

⁷⁰ 동한(東漢)의 학자 정현(鄭玄)이다. 마융(馬融)의 제자이다.

⁷¹ 엄릉 방씨(嚴陵方氏)라고 하며 저서에 『방씨집해(方氏集解)』가 있다.

⁷² 예기의 편명으로 제사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 방씨(方氏)는,

“재계란 전일하게 하는 것이니 전일하면 가지런하지 않은 것도 가지런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계란 귀로 음악을 듣지 않은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음악이란 사람이 즐기는 것이니 뜻을 흐트러트리는 것이 음악에 많이 있다. 물(物)에 뜻이 분산되지 않으므로 덕이 정밀해지고 물에 가려지지 않으므로 덕이 밝아진다. 치(致)는 지극한 것이니, 정(精)의 지극한 경지이다. 제사지내는 데에 전념하면 뜻이 정밀하게 된다. 뜻이 정밀한 것은 명(明)의 지극한 경지이므로 제사지내는 도에서 정결하고 공경스럽게 밝은 제향을 드리는 것이다. 마음에 구차한 생각이 없는 것과 기욕(嗜慾)을 중지시키는 따위는 내면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요 수족(手足)을 구차하게 놀리지 않고 샅된 일을 막는 따위는 외면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흩어진 것이 모이면 모두 정돈되니 산재 7일 동안에 정돈한다. 지극함을 이루게 되면 처음부터 가지런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치재 3일 동안에 가지런히 한다. 그러므로 정(定)은 외면적으로 정돈하는 것이요, 재(齋)는 내면에서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3. 제의(祭儀)에서는,

“안에서 치재(致齋)하고 밖에서 산재(散齋)하니 재계하는 날에 선조(先祖)가 거쳐하시던 일을 생각하고 소어(笑語)를 생각하며 지의(志意)를 생각하며 좋아하던 바를 생각하며 즐기던 바를 생각하며 3일을 재계하여야, 재계하는 연유를 알게 된다.”라고 하였다.

먼저 대강을 생각하고 점차 정밀한 부분을 생각하므로 거쳐가 먼저 있고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이 뒤에 있다.

○ 방씨(方氏)는,

“안에서 재계하는 것은 마음을 삼가는 것이요 밖에서 재계하는 것은 샅된 일을 막는 것이다. 산재는 이른

바 술을 마시지 않고 훈채(葷菜)를 먹지 않는 따위이다. 사흘간 재계하는 것이 치재이니, 반드시 치제한 뒤에야 그가 재계하는 까닭을 알게 되는 것은 생각이 지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모용씨(慕容氏)⁷³는,

“마음을 관장하는 것은 생각이니, 생각이 지극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육과 오, 애와 락에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제사지내는 데에 마음을 전일하게 한다. 그러므로 형체 없는 중에도 보이는 것을 보고 소리 없는 중에서도 들리는 것을 들으니 모두 생각이 능히 어버이의 거처와 소어와 지의와 약기에 능히 달한 것이다. 선조(先祖)는 가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실상은 없으니 어찌 형체를 접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족히 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계한 지 사흘만에야 그가 재계하는 대상을 보게 되니 생각이 지극함을 말한 것이다. 존재하는 것과 은미함의 두드러진 것을 아니 정성을 감출 수 없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4. 제사지내는 날에 제실(祭室)에 들어가면 어렵듯하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보는 바가 있고 돌아서 문으로 나오면 숙연히 반드시 그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있고 문에 나가서는 큰 한숨을 들으니 반드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입실은 묘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애연은 어렵듯한 모습이다. 그 자리에서 본다는 것은 어버이가 신위에 계시는 것을 보는 듯하다는 것이다. 용성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소리이다. 기연은 크게 한숨쉬는 소리이다.

○ 장자(張子)⁷⁴는

“어렵듯하게 신위에서 모습을 보는 듯하고 크게 한숨 쉬며 탄식하는 것을 들으니, 재계가 지극하면 제사지내는 날에 자연히 이처럼 된다.”라고 하였다.

○ 마씨(馬氏)는,

“묘실에 들어가고 당에 올라가면 어렵듯하게 신위

73 이름은 모용 언달(慕容彦達)이며 자는 숙우(叔遇)이다.

74 북송의 학자 장횡거이다.

에서 뵈는 듯하고 제물을 올리고 문을 나오면 숙연히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듯하고 바치고 문을 나와서 들으면 한숨 쉬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바가 있으니 이것이 제사의 순서이다. 애연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오 숙연은 용모를 말하는 것이오 기연은 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5. 이렇므로 선왕의 효도는 눈에서는 부모의 안색을 잊지 못하고 귀에서는 음성이 끊어지지 않고 심지(心志)와 기욕(嗜慾)을 마음에서 잊지 못한다. 지극하게 사랑하면 존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과 드러나는 것은 마음에서 잊지 않은 것이니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군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공경스럽게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공경스럽게 제향하며 종신토록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치애(致愛)는 아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극진히 하는 것이요, 치각(致敬)은 아버이를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존(存)은 이상의 글에서 세 가지의 잊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요, 저(著)는 이상의 글에서 ‘신위에서 본다’ 이하 세 가지로 말한 것이다. 공경하지 못하면 봉양과 제사가 아버이를 욕되게 할 뿐이다.

○ 방씨(方氏)는,

“안색이 눈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항상 (부모 생전에) 안색을 살펴 모시는 때처럼 하는 것이다. 음성이 귀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명을 듣는 때처럼 하는 것이다. 애(愛)는 추념의 생각을 말하고 각(敬)은 상견(想見)의 정성을 말한다. 애(愛)를 극진하게 하면 아버이가 계시지 않아도 아직도 (내 마음에는) 계시고 정성을 극진히 하면 신은 은미하더라도 오히려 (내 마음에) 드러나시니 공자께서 ‘제사지내면 옆에 계신 듯하고 신을 제사지내면 신이 곁에 계신 듯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를 말함을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 보씨(輔氏)⁷⁵는,

“천지의 성(性)은 사람이 귀하고 사람의 행실은 효보다 큰 것이 없으니 사람의 마음이다. 선왕(先王)을 그 마음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용색이 자신의 눈에서 잊혀지지 않고 부모의 성음(聲音)이 저절로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부모의 심지와 기욕이 스스로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바로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 마음의 애와 경을 다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지극하면 내 마음에 존재하고 정성을 다하면 신이 나타난다. 애는 마음이므로 존재한다고 하였고 각은 정성이므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존재하는 것이 안에서 존재하는 듯하고 나타나는 것이 밖에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진실로 내외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드러나고 보존하여 마음에서 잊을 수가 없다고 끝맺음을 하였다. 드러나고 보존되어 마음에서 잊지 않으면 성대하게 위에 계신 듯하고 좌우에 계신 듯하니 어디에 계시는지 헤아릴 수가 없도다. 하물며 싫증내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한 순간이라도 공경하지 않으면 도리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나면 아버이를 욕되게 한다. 그러므로 살아서는 공경스럽게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공경스럽게 흠향하는 것이니 이것이 종신토록 부모를 욕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6. 효자가 장차 제사지내고자 할 때는 미리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때에 미처서 물을 갖추는 것에 대해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마음을 집중하여 다스려야 한다.

○ 보씨(輔氏)는

“일은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물은 미리 갖추지 않을 수 없으며 제사 때가 되면 마음을 집중하여 다스릴 뿐이다. 한편으로 미리하지 않고 한편으로 미리 갖추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정성이 무너지니 신명과 통하는 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75 이름은 보광(輔廣)이며 호는 한경(漢卿)이다.

7. 효자가 장차 제사지내려면 반드시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복물을 갖추고 궁실을 수리하여 백사를 다스린다. 제사하는 날이면 반드시 안색을 온화하게 하고 행동은 두려워하기를 부모를 사랑하는 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듯이 한다. 음식을 올리게 됨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용모를 온화하게 하고 몸은 반드시 굽혀서 말하려고 하되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다. 숙자가 모두 나갔을 때에는 유순하고 고요하고 바르게 하여 마치 장차 뵈지 못할 듯이 한다. 제사지낸 후에는 도도수수하게 하여 장차 다시 들어갈 듯이 한다. 이리므로 공손하고 착함이 몸을 떠나지 않고 이목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사려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서 마음에 맺히고 안색에 드러나서 술성하니. 이것이 효자의 뜻이다.

각선(愷善)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선하고 계단을 오르내림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요, 이목(耳目)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듣고 보는 것이 그 마음에 보존된 것을 어지럽힐 수 없다는 것이다. 결(結)은 풀 수가 없다는 뜻이다. 술(述)과 술(述)은 같은 뜻이다. 술성(述省)은 순성(循省)과 같으니 매사에 생각하고 살핀다는 뜻이다.

○ 방씨(方氏)는,

“그가 올 때에는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이미 오면 말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다. 가게 되면 장차 보지 못할 것처럼 한다. 이미 가버리면 장차 다시 올 것처럼 한다. 그렇다면 이는 효자가 아버지를 생각함에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없고 시절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애친하는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니 즉 앞의 경서(經書)에서 말한 사랑을 다하면 존재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말을 하면서도 하지 못할 듯하다는 것은 ‘직접 명을 듣는 것처럼 한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장차 뵈지 못할 듯이 한대라고 한 것은 즉 ‘장차 잃을 듯이 한다’ 라

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장차 다시 들어올 것처럼 한다’ 라고 한 것은 ‘또 따라서 생각한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애(愛)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니, ‘사랑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한 것은 애친의 마음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語)는 아버지의 말이니, ‘말하려고 하되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다.’ 는 것은 아버지가 말하려고 하되 꺼내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도도(陶陶)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부에 있고, 수수(遂遂)는 사친(思親)하는 마음이 외부에 도달한 것이다. 제사지낸 후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은 아버지가 장차 다시 들어가려는 것 듯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섭씨(葉氏)⁷⁶는,

“안색이 온화한 것은 부드러운 기색이 있는 것이다. 용모가 온화한 것은 유순한 몸가짐이 있는 것이다. 유순하고 고요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깊은 생각이 있는 것이다. 부드러운 기색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미칠듯이 하므로 행동에서 반드시 두려워하는 것이다. 유순한 몸가짐이 있으면 아버지의 명을 듣는 것처럼 하므로 몸이 반드시 굽혀지게 된다. 깊은 생각이 있으면 장차 아버지를 뵈는 듯하므로 반드시 바른 자세로 서게 된다. 도도(陶陶)는 기가 온화한 것이요 수수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각(愷)은 내부에서 선(善)한 것을 말한다. 몸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외부에서 응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목은 외부에서 말한 것이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에서 주관하니 내외가 정해진 후에 아버지를 사랑함이 지극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8. 효자의 제사에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섰을 때는 몸을 굽혀서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아갈 때에는 부드러운 기색으로 공경하고 제물을 올릴 때는 공경스런 마음으로 흥향하시기를 바란다. 물러나서 섰을 때는 명을 받는 것처럼 한다. 철상하고 물러나서도 공경하고 엄숙한 안색이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으니 이것이 효자의 제사이다. 서되 몸을

76 이름은 섭몽득(葉夢得)이며 호는 소은(少蘊)이다.

굽히지 않는 것은 뻗뻗한 것이요, 나아가되 안색을 부드럽게 하지 않은 것은 어버이와 소원한 것이요. 제물을 올리고도 흠향을 바라지 않는 것은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물러나 서서 어버이의 명을 받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은 거만한 것이다. 철상하고 물러나서도 공경하고 엄숙한 기색이 없는 것은 근본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제사지내는 것은 잘못이다.

○ 방씨(方氏)는,

“효자의 제사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태도를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서는 것은 바야흐로 일을 거행되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말한다. 나아간다는 것은 일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다. 올린다는 것은 제물을 받들어 올리는 것이다. 물러나 선다는 것은 나아갔다 다시 물러나는 것이다. 철상하고 물러난다는 것은 제물을 올린 후에 철상한다는 것이다. 물러나서 서는 것은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는 것이요, 철상하고 물러서는 것은 제실(祭室)에서 물러나는 것이니 이것이 서로 조금 다른 점이다. 섰을 때에 공경스러운 태도로 굽힌다는 것은 몸을 굽히면 그곳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한다. 그러므로 섰을 때에 굽히지 않는 것은 뻗뻗한 것이다. 나아갈 때 공경하기를 온화한 기색으로 한다는 것은 안색을 부드럽게 해서 친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니 나아가되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소원한 것이다. 제수를 올리되 공손히 흠향을 바라는 것은 마음으로 흠향을 바라는 것이니, 제수를 올리고도 흠향을 바라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물러나서 섬에 명을 받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유순하게 명을 따라서 소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러나 서서 명을 받드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것이다. 이미 철상하고 물러나서 공경하고 엄숙한 빛이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신종(慎終)이 시종 같다. 그러므로 철상하고 물러나서 공경하고 엄숙한 빛이 없으면 근본을 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 모용씨(慕容氏)는,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능히 달하면 용모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공경하고 엄숙한 빛이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근본이 있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없으면 근본을 잊은 것이다. 마음에서 망각하지 않으면 근본이 존재하고 근본이 존재하면 용모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여기에서 표리가 일치된다. 용모가 이와 같음을 보면 근본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처럼 제사지내면 잘못이다.’라고 한 것이다. 전자를 따라서 제사지낸다면 그의 마음이 근본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자를 따라서 제사지내면 근본을 잃은 것이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데 근본은 효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효자가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 육씨(陸氏)⁷⁷는,

“서되 굽히지 않는 것은 어버이의 사랑을 믿는 것이므로 뻗뻗하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되 유순하지 않는 것은 어버이를 가깝게 여기지 않는 것이므로 소원하다고 하였다. 제수를 올리고도 흠향을 바라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올린 것과 같으니 사랑하지 않음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물러나서 서되 명을 받드는 것처럼 하지 않음은 오만한 것이다. 제사는 엄숙함을 근본으로 하니 제사에서는 유순하지 않음을 혐의롭게 여긴다. 제사에서 엄숙하지 않음을 혐의롭게 여기는데, 철상하고 서 근본을 잊어버렸으니 이를 ‘근본을 망각하였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9. 오직 성인만이 상제(上帝)를 흠향하게 할 수 있고 효자만이 어버이를 흠향하게 할 수 있다. 향(饗)이란 향한다는 것과 같으니, 마음이 향한 후에야 능히 흠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자는 시동을 대하여도 공경하는 안색을 변하지 말고 시동에게 바치고 제물을 올리게 됨에 엄숙하게 공경하며 유순하게 마음을 다하며 간절하게 흠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77 이름은 육전(陸佃)이며 호는 농사(農師)이다.

시동을 대하여 안색을 바꾸지 않은 것은 아버이를 향한 마음이니 사랑과 정성을 다함을 알 수 있다. 제제(齊齊)는 정숙(整肅)한 모습이다. 유유기충(愉愉其忠)은 화순하게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물(勿勿)은 간절함과 같다. 저는 어사(語辭)이니 연(然)과 같은 뜻이다.

○ 항씨(項氏)⁷⁸는,

“사람으로서 신과 통하는 것은 슬픈 마음이 지극히 순수하여 그와 동화(同化)된 사람이 아니면 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인만이 능히 상제를 흠향할 수 있고 효자만이 아버이를 흠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인인(仁人)의 마음이 천지와 일체(一體)가 되고 효자의 마음이 부모와 일체가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10. 문왕(文王)의 제사는 죽은 분을 섬기기를 살아있는 분 섬기듯이 하고 죽은 분을 생각하여 반드시 살고 싶지 않은 듯이 하여 기일에는 반드시 애도하고 휘(諱)를 칭할 때는 아버이를 뵈는 것처럼 하였으니 충실하게 제사지내는 것이다. 아버이가 좋아하시던 물건을 보면 평소에 즐기시던 안색이 있는 듯 하였다. 문왕이 제사에 참여한 다음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자지 않았으며 밥을 먹을 때에는 바쳤으며 또 따라서 생각하며 제사하는 날에는 즐거운 마음과 슬픈 마음이 반이었으니 흠향할 때는 반드시 화락하게 하고 제사에 이르면 반드시 슬퍼하였다.

○ 진씨(陳氏)⁷⁹는,

“살고 싶어하지 않는 듯이 한다는 것은 따라 죽으려는 듯이 하는 것이다. 종묘(宗廟)의 예(禮)에서 윗사람이 있으면 아랫사람의 이름을 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휘를 칭하는 때에 고조를 제사지내는 경우에 증조 이하의 이름은 휘하지 않는다. 여욕색연(如欲色然)은 아버이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물건을 상상하여 아버이가 그것을 즐기시던 안색을 뵈는 듯한 것을 말한 것이다. 흠향함에 반드시 즐거워하는 것은 신이 옴을 맞이한 것이다. 이미 이르러서 예가 끝나면 가벼리므로 슬퍼하는 것이

다.”라고 하였다.

○ 방씨(方氏)는,

“죽은 분을 섬기기를 살아있는 분 섬기듯이 하는 것은 제사지냄에 신이 곁에 계신 것처럼 한다는 말이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살고 싶어하지 않는 듯이 한 것은 지극히 애통해 한다는 말이다. 기일(忌日)에 반드시 애통해하는 것은 종신(終身)의 상(喪)이라고 하는 것이다. 휘를 칭함에 반드시 아버이를 뵈듯이 하는 것은 이름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명발(明發)은 밤부터 광명이 뜰 때까지이다. 제사하는 이튿날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제사지내는 당일에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제사지내려고 재계하면 신이 가시는 것을 미리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사에서 정성을 다하고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다. 제사지내는 날에 즐거운 마음과 슬픈 마음이 반이라는 것은 흠향하는 것은 반드시 즐겁지만 신이 이미 오시면 반드시 슬프다. 흠향함에 반드시 기뻐하는 것은 그가 옴을 즐겁게 맞이하는 것이요, 이미 오시면 반드시 슬프게 여기는 것은 그가 가실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앞의 경에서 오는 분을 즐겁게 맞이하고 가는 분을 슬프게 전송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 진씨(陳氏)는,

“군자가 아버지에게 살아서는 예로서 섬긴다. 섬기는 날에 기쁨과 두려움이 반이니, ‘부모의 연세를 알지 않을 수 없으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다.’고 한 것이다. 돌아가시면 예로서 제사지낸다. 그러므로 제사지내는 날에 슬픔과 기쁨이 반이니 ‘흠향할 때는 반드시 즐겁고 신이 이르면 반드시 슬퍼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미 이르면 반드시 슬퍼하는 것은 본(本)을 돌이킨 것이다. 가는 분을 슬프게 전송하는 것은 종(終)을 찾으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1. 군자에게는 종신(終身)의 상(喪)이 있으니 기일(忌日)을 말한다. 기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상서롭지 않아서가 아니며, 이 날에 반드시 뜻이

⁷⁹ 남송의 학자 진순(陳淳)이다. 호는 북계(北溪)이다.

지극한 바가 있어서 감히 사사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 진씨(陳氏)는,

“기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다. 불용(不用)은 이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부일(夫日)은 이날과 같다. 뜻이 지극한 바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12. 제통(祭統)에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도에서는 예보다 급한 것이 없다. 예에는 오경(五經)이 있으니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제사는 물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 마음 가운데서 나오니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로서 받드니 현자만이 제사의 뜻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방씨(方氏)는,

“마음을 다하는 것은 제사의 본(本)이오, 물(物)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제사의 말(末)이다. 본이 있는 후에야 말이 뒤따르게 되니 제사는 물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을 두렵게 하여 예로서 받드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마음이 내부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므로 예로서 외부에서 받들 따름이다. 마음 속에서 나오고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예로서 받드는 것이다. 물(物)에서 보고 의(義)를 다하여 마음에 보존하는 것이다. 물에 순응하여 본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중인(衆人)이오 마음에서 발하여 물에서 드러나는 것은 군자이므로 ‘어진 사람만이 제사의 뜻을 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보씨(輔氏)는,

“제사는 내가 정성과 공경을 하는 것일 뿐이므로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니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외부에 있는 물은 그것을 받들 뿐이다. 그러므

로 ‘물이 외부에서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마음을 엄숙히 하여 예로서 받드는 데에서 외부에서는 물을 따르고 내부에서 그 마음을 망각하므로, ‘현인만이 제사의 의식을 다할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다.

13. 제사란 생전에 봉양하던 마음을 이어서 효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효도란 기르는 것이니, 도(道)에 순종하여 윤상(倫常)을 거스르지 않음이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응씨(應氏)⁸⁰는,

“생전에 하지 못했던 봉양을 추후에 하여 미진한 효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축(畜)에는 ‘기른다.’라는 뜻이 있고 ‘머물러서 길러서 모은다’는 뜻이 있다.”라고 하였다.

○ 유씨(劉氏)는,

“이미 먼 선조를 추양(追養)하고 효도를 계속하여 잊지 않는 것이다. 축(畜)은 간직하는 것이니 마음에 간직하고 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솔성(率性)의 도를 따라서 천서(天紘)의 윤상을 잃지 않는 것이니, 시경(詩經)에서 ‘마음에 사랑하니 어찌 말하지 않으리오마는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으니 어느 날인들 잊으리오⁸¹’ 하니 이는 쌓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방씨(方氏)는,

“추양 계효에서 양(養)은 사친(事親)의 일이오, 효(孝)는 사친의 도이다. 추(追)는 과거의 일을 뒤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오, 계(繼)는 끊어진 것을 잇는 것이다. 효자가 아버지를 섬김에 위로는 천도(天道)를 따르고 아래로는 인륜(人倫)을 거스르지 않으니 이를 축(畜)이라고 한다. 공자가 이르기를 ‘부자(父子)의 도는 천성(天性)이다.’라고 하니 효도가 천성에 순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맹자는 ‘〈내칙(內則)〉에서 「부자의 도는 인륜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효도가 인륜을 거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80 원의 학자로 저서에 『家禮辨』이 있다.

81 <<시경>> 소아(小雅) 습상(濕桑) 편이다.

14. 이렇므로 효자가 아버이를 섬기는 것에는 세 가지 도가 있으니 살아서는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상(喪)을 치르고 상이 끝나면 제사를 지낸다. 봉양에서는 그의 유순함을 보고 상에서는 슬퍼하는 것을 보고 제사에서는 공경하되 때에 맞게 하는 것을 본다 이 세 가지 도리를 잘 하는 것이 효자의 행동이다.

봉양은 유순함을 위주로 하고 상은 슬픔을 위주로 하고 제사는 공경을 위주로 한다. 때라는 것은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니 예에서는 때를 중요시한다.

○ 방씨는,

“양지(養志)를 상(上)으로 삼고 양구(養口)를 하(下)로 삼으니 이것이 양(養)의 순조로움이다. 성음(聲音)에서 발하고 의복(衣服)에서 드러나는 것이 상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神明(神明)과 교감(交感)하는 것이 제사를 공경스럽게 하는 것이요, 드문드문한 것과 빈번함을 조절하는 것이 제사를 때에 맞게 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봉양에서 즐거움을 다하고 상에서 슬픔을 다하고 제사에서 엄숙함을 다한다.’라고 하였고 또 ‘춘추의 제사는 때에 따라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바로 이것과 부합된다. 이 세 가지는 효자가 항상 행하는 바이므로 ‘도가 행해져서 볼 만한 자취가 있다.’라고 하였고 또 ‘효자의 행동이다.’라고 하였다.”

15. 논어(論語)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선조가 계시듯이 하고 신을 제사 지내면 신이 있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였다.

○ 정자(程子)는,

“제사(祭祀)는 선조를 제사지내는 것이요. 제신(祭神)은 제사 이외의 신을 제사지내는 것이다. 선조를 제사지내는 것은 효도를 위주로 하고 신을 제사지내는 것은 경(敬)을 위주로 한다.”라고 하였다.

○ 주자(朱子)는,

“이것은 문인(門人)이 공자가 정성으로 제사지내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아마 공자가 선조를 제사지낼 때

효심이 돈독하여 죽은 지 오래되었어도 때에 따라서 추사(追思)하기를 소리와 용모를 접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효심을 다하여 제사지낸 것이다. 제사 이외의 신(神)은 산천(山川), 사직(社稷), 오사(五祀)의 부류와 산림 계곡에 있는 신이니 능히 구름과 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자가 관직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엄숙하게 하는 것을神明이 와서 임하여 그와 접한 것처럼 하였다. 선조를 제사지내는 것은 효도를 위주로 하고 신을 제사지내는 것은 경(敬)을 위주로 하지만 신이 곁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였다.

○ 질문에,

“인물(人物)이 천지간에 있으면서 생생(生生)하여 무궁한 것은 이(理)이며, 모이면 생기고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은 기(氣)이다. 기(氣)가 여기에 모이면 이(理)가 여기에서 갖추어지는데 지금 기가 흩어져서 없으면 이가 어디에 붙겠는가 그러나 나의 이 몸은 조고(祖考)가 남기신 몸이요, 조고의 기가 나에게 유전(流傳)되어서 없어진 적이 없다. 혼(魂)은 위로 올라가고 백(魄)은 아래로 내려와 이미 화해져서 형체는 없어지더라도 저기에 근본하는 이(理)가 멈춤이 없고 나에게 갖추어진 기(氣)가 다시 끊어짐이 없으니 내가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제사지내는 것이다. 기가 순일(純一)하여 잡되지 않으면 이가 절로 분명하여 가릴 수가 없으니, 묘맥(苗脈)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기가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은 나무의 기가 열매에 전해지는 것과 같으니 열매에 전해진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산 나무가 남김없이 마르고 훼손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기는 여전하다. 이들이 처하는 것이 열매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미루어 보면 저절로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16. 공자(孔子)는,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지내지 않은 듯하다.”라고 하였다.

○ 주자(朱子)는,

“제사 때가 되어서 혹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섭행(攝行)하게 하면 여재(如在)의 정성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사지냈어도 마음이 허전하기가 제사지내지 않은 듯하다. 성(誠)은 성실(誠實)이다. 성(誠)이 있으면 범사가 모두 존재하게 되고 성이 없으면 범사가 모두 존재하지 않게 되니 제사에 성의(誠意)가 있으면 유명(幽明) 사이에서 교감하게 되고 성의가 없으면 서로 전혀 접할 수가 없어서神明(神明)을 볼 수가 없다. 오직 마음으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제사지내는 신에게만 전일하여야 신을 보는 것을 충만하게 위에 계시고 좌우에 계시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의 유무(有無)는 마음의 성(誠)과 불성(不誠)에 달려 있으며 황홀한 사이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다.

○ 범씨(范氏)⁸²는,

“군자의 제사에서 7일을 재계하고 3일을 재계하여 반드시 제사지내는 분을 보는 것은 정성의 지극함이다. 이리므로 교외에서 제사를 지내면 천신(天神)이 이르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면 인귀(人鬼)가 흠향하니 자신의 성의에 인하여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정성이 있으면 신(神)이 있고 정성이 없으면 신이 없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지내지 않은 듯하였다’라고 한 것은 성(誠)이 실이요 예(禮)가 허(虛)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17. 증자(曾子)는,

“신중(慎終)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였다.

주자(朱子)는 “신중(慎終)이란 상(喪)에서 예를 다하는 것이요, 추원(追遠)이란 제사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종(終)은 사람이 소홀하기 쉬운데 근실(勤實)하게 할 수 있고 먼 조상은 잊기 쉬운데 능히 추모할 수 있다면 후한 도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것을 하면 자신의

덕이 후해지고 하민(下民)이 감화되면 그들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였다.

○ 허씨(許氏)는

“상인(常人)의 정리(情理)는 아버지의 상에서 비통한 마음은 간절하고 계신(戒愼)하는 마음은 혹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대수(代數)가 먼 조상에게 제사지내면 공경하는 마음만 앞서고 사모하는 마음은 간혹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군자의 마음 두는 것이 여기에 가해져서 송종(送終)에서 벽옹(踊)과 곡읍(哭泣)의 도리를 다하고도 상사(喪死)의 예를 신중하게 하니 <<예기>>에서 ‘빈(殯)에서는 시신(屍身)에 쓰는 것⁸³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고 장사(葬事)에서는 관(棺)에 쓰는 것⁸⁴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여 후회스럽지 않게 한다⁸⁵.’하는 따위이다. 먼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에서 효경(孝敬)의 뜻을 다하고 추모의 정을 다하는 것은 <<예기>>에 ‘이른바 죽은 분을 제사지낼 때에는 살고 싶지 않은 듯이 하고 상로(霜露)가 내리면 슬픈 마음이 생기고 우로(雨露)가 적시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따위이다.”라고 하였다.

18. 또 말하기를,

“신중(慎終)은 슬퍼하는 중에서 공경스런 마음을 간직하고, 추원(追遠)은 공경하는 중에서 슬픈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였다.

위의 <<봉선잡의(奉先雜儀)>>는 주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를 기본으로 하고 사마공(司馬公)과 정씨(程氏)의 제례(祭禮)와 시속(時俗) 중에서 적절한 것을 참조하여 조금 가감하여 간이하게 만들기에 힘써서 일가(一家)의 예(禮)를 만들었으니 지금에 적절하게 준수하고 바꾸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제사의 뜻에는 본(本)이 있고 절문(節文)이 있으니 본이 없으면 예(禮)가 확립되지 않고 절문이 없으면 예가 행해지지 않는다. 마음

82 이름은 범조우(范祖遇)이며 호는 순보(淳甫)이다.

83 염습(殮襲)에 쓰는 옷이나 이불을 말한다.

84 무덤에 넣는 명기(明器)나 용기(用器)를 말한다.

85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上)>에서 출전하였다.

에 간직된 것은 본이요, 물(物)에서 드러나는 것은 문이니 반드시 절문과 본을 함께 다해야만 제사의 뜻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음에 간직된 것이 미진하면 절문이 구비되어도 부질없다. 그러므로 예경(禮經)의 글과 선성(先聖)과 선현(先賢)의 말씀 중에서 보본추원(報本追遠)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별도로 한 편을 만들어서 뒤에 붙였으니 인인(仁人)과 효자가 여기에 잡심(潛心)하여 깊이 체받으면 마음에 뿌리내린 애경(愛敬)이 자연히 발하여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

가정(嘉靖)⁸⁶ 경술(庚戌)⁸⁷ 8월 갑자(甲子)에 여강(驪江)⁸⁸ 이언적(李彦迪)은 삼가 쓴다.

⁸⁶ 명나라 세종(世宗)의 연호이다.

⁸⁷ 조선 명종 5년(1550년)이다. 이때 이언적은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강계(江界)에 유배 중이었다.

⁸⁸ 여강(驪江)은 여주(驪州)를 말하는데, 이언적의 본관이 여주이다.